주목! 이 영화 트랜스 포머

변신 로봇 주연 블록버스터

미국과 일본의 완구 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장난감 로봇에서 출발한 블록버스터로 로봇 군단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도 제작돼 인기를 모은 작품으로 '아일랜드' '진주만'을 감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중고차 가게에서 자동차 한대를 구입한 샘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자동차가 직립하더니 거대 로봇으로 척척 변신하는 걸 보게 된다.

한편 정체 모를 거대 로봇이 미군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정부는 혼비백산해 긴급 전략을 세운다. 미군 기지를 습격한 로봇은 악의 로봇 군단 '디셉티콘'의 로봇이고 샘의 자동차였던 로봇은 정의의 로봇군단 '오토벗'의 일원이다.

샘은 두 로봇 군단이 가공할 에너지원 큐브를 찾아 지구에 왔고 자신이 그 위치를 알려줄 열쇠를 지녔음을 알게된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차승원 한석규

한석규·차승원 연기 대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께 캐스팅

한석규와 차승원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크랭크 인 한 액션 범죄극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감독 안권태)에 함께 캐스팅 돼 연기대결을 벌이게 됐다.

한석규는 일명 '백전백승 백반장'이라고 불리는 검거율 100%의 전설적인 형사 백성찬 역을 맡아 지적이면서도 뛰어난 동물적 직관을 가진 형사 연기를 보여준다. 차승원은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를 구성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지능범 안현민(차승원) 역을 맡았다.

안현민의 조직원으로는 관록파 배우 오광록을 비롯, 권오중·김정태·김지석이 캐스팅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드라마 '쩐의 전쟁'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영화·드라마는 진화중

영화가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영화가 된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장르를 바꿔 다시 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청률 35%를 넘나들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쩐의 전쟁'은 영화로 만들어진다.

현재 스포츠 신문에 연재중인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쩐의 전쟁'은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채업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작품.

지난 2005년 이미 판권을 구입한 영화사 테마비전은 현재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아직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박신양·박진희 등 드라마 출연진들이 영화 출연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제작사는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의식해야 하는 지상파 TV 드라마의 한계를 넘어 원작 만화에 묘사된 돈과 폭력의 무서움을 보다 적나라하고 강도 높게 그려낼 계획이다.

1천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사를

'쩐의 전쟁' '안녕 프란체스카' 영화로
'괴물2' '식객' 영화·드라마 동시 제작

다시 쓴 '괴물'이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09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괴물 2' 제작을 추진중인 영화사 청어람은 기존의 작품에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한 드라마도 함께 준비중이다.

'비트' '타짜' 등 영화를 통해 흥행에 성공한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식객'은 영화와 드라마로 동시에 제작중이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 '성찬'역을 맡은 김강우와 김래원의 연기 대결이 볼거리.

김강우·이하나·임원희 등이 출연한 영화 '식객'은 현재 촬영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중이다. 음식 관련 영화인 만큼, '음식감독'이라는 스태프까지 따로 둘 정도로 세심한 신경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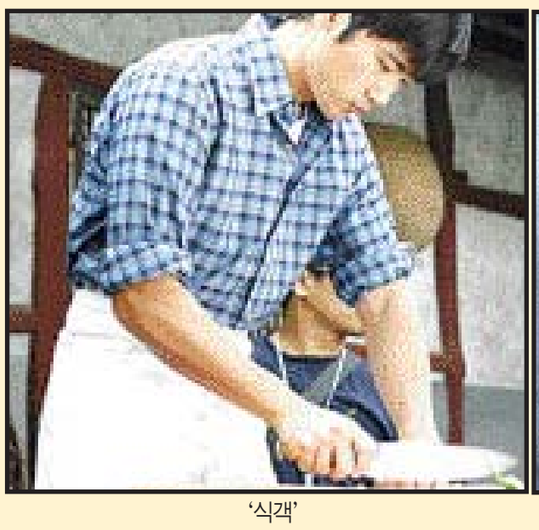
드라마 '식객'은 김래원 주연으로 제작중이다. JS픽쳐스가 총 24부작으로 제작중인 '식객'은 50억원 규모의 세트장과 72억원의 제작비 등 총 122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대작으로 80% 이상 사전 사전 제작 형식으로 제작된다.

김래원 이외에도 최고의 남자 요리사인 대령숙수역으로 최불암이 캐스팅돼 영화에서 같은 역할을 맡은 김진태와 연기 대결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말 개봉된 '올드미스 다이어리 극장판은 드라마가 영화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올드미스 미자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그린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여성관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으며 남자주인공 지현우를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다. 예지원·지현우·임현식·김영옥 등 드라마 출연진들이 고스란히 영화로 옮겨갔고, 연출 역시 드라마를 만들었던 김석윤 PD가 맡았었다.

그밖에 열혈 마니아들을 만들어냈던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심은하 주연의 드라마 'M', 장수인기 프로 '수사반장' 등도 영화화 물망에 올라있으며 히트 연출가 윤석호 PD의 작품인 '가을동화'와 '겨울연가' 역시 영화를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식객'

'괴물'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트랜스 포머 로봇 군단간의 대결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씨노이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첨단), 하미
검은집 연쇄살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릴러물로 황정민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하미
4.4.4 사방이 꽉 막힌 밀실에 갇힌 한 여자의 탈출 과정을 그린 스릴러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두번째 사랑 하정우·베라 파미가 주연의 멜로 드라마. 18세 관람가.	씨너스 전대,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하미
오션스 13 사기꾼 일당의 유쾌한 한탕을 그린 영화로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슈렉 3 못생긴 괴물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3번째 이야기.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엔터
캐리비언의 해적 3 -세상의 끝에서 조니뎁, 올랜드 볼룸,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액션 어드벤쳐.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제일), 하미, 엔터
황진이 홍석중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송혜교, 유지태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엔터
밀양 이창독 감독 작품으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전도연·송강호 주연. 15세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엔터
뜨거운 녀석들 두명의 경찰의 좌충우돌 액션 코미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콜롬버스(상무), 무등, CGV(첨단·상무)